

2021 THEME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 I = Imaginative Ministry [창의적 사역]
- M = Making Disciples [제자 양육]
- P = Passionate Worship [열정적 예배]
- A = Action for the Gospel [복음의 실천]
- C = Community Outreach [이웃 섬김]
- T = Training Missionaries [선교사 양성] &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킴]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Fax: 949.854.4018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유아부(2-3세)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유치부(4-5세)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유년부(1-3학년)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초등부(4-6학년)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영어중등부(BYM Jr.)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영어고등부(BYM)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한어중고등부(CIM) / 온라인 예배
11:30AM
- 소망부(장애인) / 온라인 예배
9:15AM(청소년) & 11:30AM(어린이)
- BETHEL GRACE CHURCH / 온라인 예배
10:30AM
- 日本語 礼拝 / 온라인 예배
1:30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us.cts.tv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TV 방송 (미주 CGN TV):
TV 채널 31.9 · 화요일/오후 2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0부 예배 | (토) 6:00PM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15AM 3부 예배 | 11:3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0, 1, 2, 3부/히브리서 13:9-14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태복음 6:1-4
- 말씀 Message 0,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히브리서 강해(46)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삶에서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0, 1, 2, 3부/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찬465/새407장), 보혈을 지나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0, 1, 2, 3부/믿음 in '21
-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코로나를 통해 배우는 교훈 4 - 고난의 유익

Lessons Learned from Coronavirus 4 - Benefit of Affliction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71) 고백합니다. 표면적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이 무슨 궤변인가 싶기도 하고, 혹은 고난을 미화하여 어려운 상황을 에두르려는 시도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숙한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100% 경험적 동의를 할 것입니다.

저의 큰아들이 철모던 고등학생 시절, 선교 현장을 두 주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서 선교를 했다기보다는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십여 명이 같이 숙박을 하면서, 현장에서 막노동에, 현지인들을 찾아다니며 '전도' 보다는 그들의 도움이 되도록 물을 길어주고, 밭일을 거두고, 저녁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훈련이었는데, 샤워도 제대로 못 하고, 화장실 사용도 불편했던 기간이었습니다. 두 주간 선교 현장에 머무는 비용과 교통비까지 자비로 다녀온, 말 그대로 고생을 사서 한 기간이었습니다. 두 주가 지나 새까맣게 타서 귀가한 아들의 첫마디는 “Our problems are too luxurious! 우리의 문제는 너무 사치합니다.”였습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은 선교 현장에서 겪는 주민들의 문제에 비하면, 고민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고난의 유익은 역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먼저 배웁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체득하게 되는 기간입니다. 그때, 고난은 우리를 보석으로 다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입성하는 거룩한 성을 보석으로 묘사한 계시록 21장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고난에 내동댕이쳐진 돌이 폭풍에 깨지고, 비바람에 다듬어지면서 보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코비드 19 팬데믹이라는 고난 역시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쓰신 도구였습니다. 얼마 전, 지인이 보내준 기도문은 그 유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것을 많이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을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듯이,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춧돌이라”(사 28:16) 바로 우리를 위해 한결같이 고난받은 돌이 되어 오늘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의 손길로 만지고, 보석으로 다듬고 계십니다.

Psalm writer confesses, “It is good for me that I was afflicted, that I might learn your statutes” (Psalm 119:71). On the surface, you may think this seems like a false argument or a poetry that beautifies affliction to get through difficult times. However, most of mature believers will agree 100% with this from their experiences.

My eldest son went on a short-term mission for two weeks when he was just an immature high schooler. Rather than doing a mission work, he was trained in a mission field by the missionary. It was a training in that some ten plus students slept together, doing hard labor in the field, visiting locals not to 'evangelize' but to be useful to them by bringing water, helping in their fields, and gathering every night to worship. They couldn't really take shower. Using the bathroom was uncomfortable. Paying for transportation and the cost to stay there for two weeks were just that, paying for hardship. First words out of my son when he returned, completely tanned, were “Our problems are too luxurious!” He learned that the problems we face here in America is nothing compared to the problems faced by locals in the mission field.

I think the benefit of affliction is to learn God's teaching. It's learning first that the key to problem solving is not with me but with God. It's the moment of understanding that not my will but God's will is right. Then, the affliction becomes a tool to refine us into jewels. It's not a coincidence that Revelation 21 describes the Holy City in jewels. Rock gets tossed around and broken in storms. As they are trimmed in wind and rain, they become jewels. Our affliction of pandemic called Covid 19 was also a tool God used for our benefit. Not too long ago, an acquaintance sent me a prayer. The prayer reads the benefit this way.

Father God-!! How much have we lied that you want us to live with our mouths covered with masks? How much have we argued, envied, and hated each other that you want us to live distanced from each other? How much have we sinned and did bad things with our hands that you want us to sanitize our hands wherever we go? How much have we lived hot tempered that you want us to check our temperature everywhere we go? Now, I will live humbly, loving others!

Like a stone thrown out by a builder becomes a cornerstone, our Jesus is, as prophet Isaiah prophesied, “the one who has laid as a foundation in Zion, a stone, a tested stone, a precious cornerstone, of a sure foundation...” (Isaiah 28:16). He has become a stone, so afflicted. He refines those believers who are afflicted today with His comforting hands to make them into jewels.

코로나 숲을 뚫고 가는 로드맵

히브리서 강해

(주일설교시리즈) 제 46 편

토요 0부,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히 13:9-14)

1. 이단에 빠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적용하기



2.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히브리서 설교자는 경고합니다. 아래 성경구절을 읽고 교회의 가르침을 담당 목사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나눠봅시다. (참고/ 마 7:15, 행 20:30, 갈 1:6-9)

3.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우리(크리스천들)의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10절). "장막"과 "제단"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아보고, 아래 구절을 참고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참고/ 요 6:48-58)

4. 속죄일 제물의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 속죄의 피로 사용하지만,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의미를 새겨보십시오. (11-12절, 참고/ 레 16:27)

5.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교훈을 오늘에 적용하여 봅시다.(13절, 참고/ 고전 1:8, 23-24, 고전 2:2)

■ 적용찬양: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찬465/새407장), 보혈을 지나



베델 예배

<현장 예배 II> 맘속의 빛장 열리는 그곳

2021년 3월 첫째 주, 정말 오랜만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TV 앞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했던 저의 모습은 마치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듯 목소리 높여 찬양하였고 현장에서 목사님을 직접 바라보며 말씀을 듣는 나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처럼 사뭇 진지하고 비장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 이호성 집사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된 첫 현장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에 갈 수 없던 상황에서, 주님은 교회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고 교회에 대한 사랑과 설렘을 다시 선물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힘든 상황을 잘 리드해주신 우리 목사님들과 예배자분들의 헌신과 사랑에 매번 감사드립니다. 엘새를 위해 새벽 1:30부터 준비하셨다는 목사님들 그리고 매일 말씀을 준비해주신 담임목사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듯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베델 가족, 베델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장한나 집사

지난 일 년, 주보를 볼 때마다 "현장 예배 오픈"이란 단어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설렘과 기대로 첫 현장 예배에 참석한 3월 7일! 어느 곳이나 계신 하나님이지만 베델 본당에서만 느낄 수 있는 성령님의 임재는 팬데믹으로 지쳐 있는 영혼을 위로하며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히 믿음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특히 자족은 '배우는 것'이며 복음의 부요함을 누리라는 말씀에 도전받고 역시 현장에

서만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따로 있음을 깨달으며 다음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현장 예배 오픈을 위해 섬겨 주신 모든 성도님과 목회진의 섬김에 감사드리며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 정명희 집사

주일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 교회로 오셔서 예배를 준비할 때부터 물밀 듯이 몰려오는 은혜가 마음 저 밑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마스크를 쓰고 드리는 예배라 서로 부둥켜안을 수는 없었지만, 마음은 모두 같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베델의 예배는 이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베델의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 정윤숙 권사

코로나 팬데믹 숲을 뚫고 일 년 만에 올려지는 주일 예배의 감격은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만으로 기뻐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일 년을 돌아보면 그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다시 한번 잃어버린 첫사랑과 복음의 열정을 일으켜 세우신 특별한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조윤미 집사

3월 첫 주일은 마치 서머타임으로 시간이 빨라진 듯 서둘러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일 년을 기다려 중요한 분과 만나는 특별한 데이트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입던 편안한 옷과는 달리 양복을 찾아 입고 주인을 잃어버렸던 구두를 닦아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Banner

사이로 주차하며 환한 미소로 들어오시는 성도님들, 직접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며 안부를 묻고, 달세! 반가워요! 어떻게 지냈어요? 라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 가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컴퓨터 스크린으로만 들던 말씀이 예배를 통해 미디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쫓개는 말씀이 되는 축제의 예배였습니다. - 차규양 장로

할렐루야! 다시 모여 예배드리기를 허락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그리움과 간절함을 통해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찾은 소중한 예배, 이제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세요. 모든 감사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며,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달세! - 최동주 집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서자 교회 주차장에서 정해진 자리까지 안내되었습니다. 반가이 맞아 주시는 봉사자들의 안내부터가 예배의 시작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의 특별 찬양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각종 어려움으로 축 처진 우리들의 마음을 향해 편히 쉴 수 있는 주님의 푸른 숲속으로 초대해 주시는 위로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예배의 문을 열어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성도님들과 함께 눈물을 닦으며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 최영희 권사

카타콤 기도회 간증

그의 성산에서 기도하리

작년 10월쯤으로 기억합니다. 저희 제자반에게 카타콤 기도회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시는 담당 목사님 모습에 이 또한 훈련인가?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 용기 내어 기도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여성 성도분들만 계셔서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데면 데면한 마음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갈수록 은 힘을 다해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의 뜨거운 중보 기도의 열기와 함께 저도 그분들과 하나가 되어 통성으로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인지 회개인지 설명되지 않는 눈물이 흘렀고 저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방언!... 이 모든 것들을 딱히 뭐라 표현할 수 없으나 죄로 인해 나약했던 저를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참된 하나님 나라 구현과 구속의 큰 기쁨을 누리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 윤원득 형제

건강에 큰 문제가 없던 제게 작년 가을 나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자궁에 큰 혹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이미 과사가 진행되는 중이어서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술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던 당시 상태로는 난소부터 자궁까지 모두 적출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게다가 약의 부작용으로 불면증과 편두통, 이명까지 더해지자 수술 날짜를 기다리던 시간이 사무치게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늘 그리셨듯, 눈물로 심통 부리는 저를 크게 품어 주시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카타콤 기도회라는 탈출구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엘새가 시작된 주 수술을 위한 검진에서는 손톱만 한 종양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없어졌다는 거짓말 같은 결과를 들었고 부작용들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새 몸을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나의 기도는 이미 응답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도하던 자리에서 받은 평안함과 운유함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기도의 제목들 앞에서든 이젠 외롭거나 두렵지 않

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크나큰 중보의 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델의 가족들께서도 기도와 함께 시작되는 응답의 기쁨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 이자영 집사

처음과는 달리 많은 분이 참여하시면서 은혜로운 기도 모임으로 재탄생하게 된 카타콤 기도회로 줌을 통해서지만 강력한 파수꾼으로서 한 손엔 쟁기 들고 다른 한 손엔 칼을 들고 지키고, 깨우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사역을 통해 우리의 가정,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라를 지켜나가며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 김선우 집사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에게 카타콤 기도회 staff의 자리를 허락하셨고, 매주 생생한 기도회 현장을 사수하게 하셨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으로 뜨거운 기도회 열기를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줄이지만, 맘으로 뒤범벅이 되어 화면을 뚫고 나오실 듯한 목사님의 열정적인 기도회 인도! 이것이 바로 New Normal시대, 새로운 은혜의 소통임을 깨닫습니다. 뜨겁

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서로의 모습에서 오늘도 살아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시간의 가치는 기도의 응답을 넘어 우리가 주권자, 통치자, 치료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전미경 집사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외딴 섬에 혼자 있는 듯 막막하고 외로운 마음으로 카타콤 기도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땀을 뚝뚝 떨어지며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부르짖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모습에 은혜가 됩니다. 기도의 작은 불꽃들이 피어나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는 카타콤 기도회, 정말 감사합니다. - 최희운 권사

매주 목요일 카타콤 기도회 현장에서 부족한 저를 자막과 찬양으로 섬기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현장의 분위기를 "카타콤 기도회" 삼행시로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 타콤 지하 묘지에서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타: 오르는 기도의 열기와 찬양의 은혜가
 콤: 비가 되어 용광로보다 뜨거운
 베델의 기도 자리가 펼쳐집니다.
 기: 뽕이 샘솟고,
 도: 무지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회: 복의 역사가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 보세요~
 - 김정아 집사





베델교회에서 10여 년을 묵묵히 섬겨오신 오틀리오 아저씨는 단 한 번도 아프다는 이유로 일을 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허리를 다쳐 잠시 며칠간 일을 쉬어야만 했던 그날 이후 매일 새벽 출근 전에 교회의 산책로를 달리며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느냐"고 물었더니 돌아야 할 가족, 5명의 자녀가 모

< 베델 사랑 이야기 > 아버지의 눈물

두 성장하여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자신은 일을 해야 하고 그래서 아프면 안 된다며 늘 가족에 대한 진한 사랑과 책임감을 보여 주던 분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오틀리오 아저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찍부터 교회의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열심히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을 시작할 때 전날 첫째 아들이 죽었다며 담담히 얘기해서 너무 놀라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지금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니 빨리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하던 오틀리오 아저씨도 그제야 전날 한 시간도 못 하고 바로 일하러 나온 슬픔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는 땅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하듯이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 아픔이 절절히 느껴져서 서로 안아주며 위로하는 제 눈에도 눈물이 흘렸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3~4주 후어나 장례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다며 웃는 눈에 눈물이 보여 다시 말없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를 생각하면 책임감, 성실, 한결같은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한결같이 열심을 다해 섬기는 오틀리오 아저씨는 베델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축복이며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믿고 의지하는 친구이자 동역자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비바람과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그늘과 열매와 푸르름과 안식을 위해 묵묵히 서 있는 나무가 떠오릅니다. 항상 베델교회의 모든 곳은일을 힘든 내색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형제, 친구 오틀리오 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델 교회의 성도님들 사랑과 넘치는 위로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가족에게 더욱 느껴지며 그 사랑 알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김유호 집사

故 손인식 목사님 1주년 추모 예배

이 땅의 성도들은 많은 축복을 누리지만 그중에서도 건강한 교회를 만나고, 말씀과 사랑으로 목양하는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또한 기꺼이 삶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성도들과 만남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2006년 미국으로 삶의 거주지를 옮긴 후 만난 베델교회, 그리고 손인식 목사님과 베델의 성도님들은 제 인생 후반부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사회와 민족을 향해 선지자적 소명을 감당하며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들로 가득 찬 베델교회!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모 교회 목사님께서 엘리이를 방문하셨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께서서는 당황하시며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베델교회는 제 삶을 돌

아보며 성도의 삶을 재정비한 도전이었습니다.

베델교회의 참목자셨던 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김한요 목사님의 새로운 리더십 아래 도약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던 중, 갑작스럽게 손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악화되는 팬데믹 상황이라 손 목사님 천국 환송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어서 매우 안타깝고 죄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진정되는 팬데믹 상황을 맞아 교회에서는 3월 28일 주일 오후 4시 본당에서 1주기 추모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 사모님과 유족을 따뜻하게 위로하며, 손 목사님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 베델을 더욱 든든하고 굳세게 인도해주시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온 성도가 재헌신하는 감사와 축복의 자리가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인원만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22일(월)에 카톡 공지를 통해 QR코드 신청을 받게 되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교

회 YouTube 채널을 통해 현장 중계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에 영광 받으시는 은혜로운 추모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병주 장로(추모예배 준비위원)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정승락 목사
- 믿음 목장/예배/목회지원: 김형균 목사
- 소망 목장/선교: 주성필 목사
- 사랑 목장/훈련/베델뉴스: 이충경 목사
- 은혜 목장/전도/이웃사랑: 김홍식 목사
- 화평 목장/셀/기도: 박경철 목사
- 베델워십: 김섭리 목사
- 새가족/경조: 한순교 전도사
- BGC: Justin Kim 목사
- BGC(Family):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 일본어 예배: 송용주 목사
- 예살채플(총괄): 강운구 목사
- 예살채플(청년): 서찬석 목사
- 예살채플(청년): 김유미 전도사
-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 교회학교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 초등부: 김은정(Jamie) 전도사
- 유치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유아부: 경가영(April)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 지휘자: 박정영, 차은하, 이사무엘
- 오케스트라: 박정영
- 피아노: 신현진, 지지영, 한현미, 이해경
- 오르간: 이정은, 이해경, 박정연
- 솔리스트: 최정원, 백동휘
- 밴드디렉터: 정봉화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한어권: 정티나 간사
- 아기학교: 이제나(Jenna) 전도사
- 영아부: 윤희준 간사
- 유년부: 김재은 간사, 장지혜 간사
- 한어중고등부: 김소영 간사
-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중형, 장석영, 김지현
- 디자인: 박선경
- 웹: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2021년 고난주간 특별새벽집회 및 성금요일 예배

'십자가'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과 함께 나 자신이 생각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원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신 고난의 길과 십자가에 달리신 구속의 사건이, 단지 예수님에 대해 안타깝게만 느껴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 하면 내 죄를 보며 아파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파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십자가 자리에 나를 살리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나 대신 수차와 조롱을 받으며 죽음으로 부활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번 고난주간과 성 금요일예배는 이러한 나의 간증과 회개가 있는 집회로 드러지길 기도합니다. 온 세상을 위한 십자가라는 보편적인 이미지 이전에 나 한 사람,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고백하며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은혜가 베델의 모든 성도님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직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기에 이번 집회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매일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성도님들의 간증을 나누게 되고 또한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특송이 드러지게 됩니다. 모든 베델 성도님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붙들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 고난주간 특별새벽집회

일시: 3월 29일(월)-4월 1일(목), 새벽 5시 30분
 장소: 온라인으로만 진행
 강사: 김한요 담임목사

▶ 성금요일 예배

일시: 4월 2일(금), 새벽 5시 30분
 장소: 현장예배와 온라인으로 진행
 QR코드 신청: 3월 22일(월)부터

▶ 문의: 김재훈 집사 (714) 390-4967



십자가로 가까이 (누가복음 23:26)

선교후원

- [팍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욱,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루마니아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과테말라 실버 | 유한성(유영옥)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경),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류진, 온세상, 이희숙, 차은경, 김예평(길진명)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네이버스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리아 신학교, 한미가정상담소, GP미주본부, Good News Spreaders(GNS), JAMA,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베델교회 현장예배 및 예배 시간 변경 안내** 4월 4일부터 베델교회의 모든 주일 예배(1, 2, 3, 4부)를 현장예배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포스트 팬데믹을 준비하며 온라인과 현장예배 시간을 변경하오니 각 부서별 예배 시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예배 신청은 매주 화요일 새벽 5시 30분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checkin.bkc.org).

- 주일 1부 예배: 오전 7시 (현장, 온라인)
- 주일 2부 예배: 오전 9시 (현장, 온라인)
- 주일 3부 예배: 오전 11시 (현장, 온라인)
- 주일 4부 예배: 오후 2시 (현장, 온라인)
- 교회학교(유아, 유치, 유년, 초등), CIM 및 BYM 고등부: 주일 3부(오전 11시)
- BYM 중등부: 주일 2부(오전 9시)

<다음 세대 예배 및 각 부서 현장 예배 안내>

- 유아부 현장예배: 3월 28일 2부 예배, 본당 2층 영아부실, 10명(학부모 포함 20명)
- 유치부 현장예배: 3월 28일 2부 예배, 식당, 12명
- 유년/초등부 현장예배: 3월 21일 2부 예배, 체육관, 30명(변동 가능)
- 한어 중고등부(CIM) 현장예배: 3월 14일부터, 20명
- 영어 중등부(BYM Jr. High) 현장예배: 3월 28일, 20명(7, 8학년)
- 영어 고등부(BYM High School) 현장예배:
 - 3월 21일, 20명(11학년) 3월 28일, 20명(9-10학년)
 - 4월 4일, 20명(9-12학년)

* 모든 자녀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 유아부 현장 예배를 참석하시는 부모님은 1부 현장예배 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2부에 자녀와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부서별 예배에 방역을 실시합니다.

◆ **부활절 맞이 세례, 입교신청** 세례 및 입교식이 4월 4일 주일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세례 교육 및 문답을 반드시 수료해야 하며, CIM, BYM, 예삿, JM은 각 부서에서 신청, 교육 문답을 진행합니다.
 신청 기간/방법: 3월 14일(주일)-3월 28일(주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문의: 왕동원 장로 (949)910-1584 *신청자는 성례부에서 개별통보 합니다.

<성인 세례, 입교 (2부 예배 시)>
 교육 일시/방법: 3월 28일(주일) 오후 1시, 3월 31일(수) 오후 7시, Zoom Meeting
 문답 일시/방법: 4월 1일(목) 오후 7시, Zoom Meeting
 세례 자격: 만 12세 이상(BYM, CIM 이상) 및 베델교회 등록교인(6개월 이상 출석)
 입교 자격: 유아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2세 이상(BYM, CIM 이상)

<유아 세례 (3부 예배 시)>
 부모 문답 일시/방법: 3월 31일(수) 저녁 8시, Zoom Meeting
 자격: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세례교인(혹은 입교인)으로서 만 2세 미만인 자녀

◆ **베델수요프로젝트** 3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베델의 수요 프로젝트 "베델이 간다"와 "베델 큐" 3회가 베델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김성균 집사 (949)838-4110

◆ **2021 고난주간 특별새벽집회 및 성금요일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든 성도님께서는 참여하셔서 예수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7면 참고>

일시: 3월 29일(월)-4월 2일(금), 새벽 5시 30분
 강사: 김한오 담임목사
 문의: 김재훈 집사 (714)390-4967
 *성금요일 예배는 현장예배(성찬식)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 **온드라스 (온라인)선교 팀원 모집** 온라인으로 선교 훈련도 받고, 선교지에 선교영상편지도 보내고, Zoom 미팅을 통해 선교사님과 만남의 시간도 갖고, 토요일 헬스바 기도회에서 선교영상보고도 하는 등 10주 운영플랜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선교에 팀원을 모집합니다.
 일정/신청 방법: 3월 28일(주일)-6월 6일(토), 홈페이지 '선교팀 신청 바로가기'
 문의: 변준호 장로 (949)607-9869

◆ **故 손인식 목사님 1주기 추모 예배** 故 손인식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복음과 선교의 정신을 계승하며 다시 한번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석 신청은 3월 22일(월) 카톡 채널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장소: 3월 28일(주일) 오후 4시, 본당
 문의: 행정실 (949)854-4010

◆ **BYM 중등부 학부모 기도모임** 중등부 현장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열립니다. 30분 간격으로 지정된 시간에 등록하시고, 새롭게 단장된 비전채플을 학부모님의 릴레이 기도도 함께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날짜/장소: 3월 26일(금) 2-9시, 비전채플
 신청 방법: 학부모 카톡방을 통한 신청서로 등록
 문의: 천승현 집사 (512)947-7291

◆ **BYM 고등부 학부모 기도모임** 고등부 현장예배를 위한 학부모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시: 3월 26일(금) 오후 7-8시
 방법: Zoom Meeting
 Zoom ID: 455 791 0001
 문의: 김학남 집사 (408)806-4133

◆ **고난주간 특별 어린이 예배와 4월 크래프트 패키지 픽업** 교회학교 고난주간 특별 어린이 예배(3월 29일-4월 2일)와 4월 한 달간 주일 예배 후 사용할 크래프트 준비물들을 교회학교에서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담당 전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3월 27일(토) 오전 10시-오후 12시, 교회 주차장

◆ **베델서점 안내** Bethel Grace 영어권 사역을 위해 C 성전이 레노베이션을 하게 되어 4월 30일(금)로 문을 닫게 됩니다. 특별할인을 진행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오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유미 권사, 김지연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코로나 숲을 뚫고 가는 로드맵

히브리서 강해

주일설교시리즈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Book of Hebrews (46)

Let's go Outside of the Camp

(Hebrews 13:9-14)

1. Have you met anyone who fell into a false teaching(cult)?
2. Hebrew preacher warns, 'Do not be led away by strange teachings'. Read scriptures below and share the importance of learning church teachings from a senior pastor. (Ref: Matt 7:15, Acts 20:30, Gal 1:6-9)
3. It says 'We (Christians) have an altar' that 'those who serve the tent' have no right to eat from (v.10). Read scriptures below to find out what "tent" and "altar" represent and explain the reasons why. (Ref: Matt 7:15, Acts 20:30, Gal 1:6-9)
4. High priest takes the blood sacrifice from Day of Atonement into the holy place as a sin offering, but flesh was burned outside of the camp. Similarly, Jesus too suffered outside of gates. Contemplate on meaning of this. (vv.11-12, Ref: Lev 16:27)
5. Take the lesson from going outside of the camp and apply it to today. (v.13, Ref:1Cor 1:8, 23-24, 1Cor 2:2)

Apply to Life



■ Song in Response: Dying with Jesus(Hymn 465), By the Blood of the Lamb